

5개월 새 221억... 中 사기조직단 피해 '눈덩이'

중국 로맨스스캠 범죄조직과 연계 보이스포싱 등 범죄 피해규모 증가... 288명·334억→424명·555억으로 늘어 제주경찰, 8000만원 환수 조치... "추가 수사 계속 진행"

지난해 제주경찰에 검거된 중국 거점 사기 조직과 연계해 수백억원대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인 국내 일당과 관련해 피해 규모가 늘고 있다. 5개월 사이 피해자가 136명·피해액이 221억원이나 더 늘었다.

9일 서귀포경찰서에 따르면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9월 검거된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한 국내 총책 20대 A씨와 조직원 등에 대한 여죄 등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앞서 경찰은 중국 등지에서 숙소와 사무실을 마련하고 국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로맨스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범죄를 기획한 중국 사기 조직과 연계한

A씨와 조직원 등 11명을 검거했고 이들 중 6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6개월간 제주를 포함한 전국 피해자를 상대로 로맨스스캠, 금융기관 사칭 대출 빙자 보이스포싱, 노쇼, 투자리딩방 등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경찰이 밝힌 피해 규모는 피해자 288명·피해금액 334억원에 달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경찰은 관련자 3명을 더 검거했고, 피해규모도 늘어났다. 올해 2월 기준 피해자는 424명, 피해금액은 555억원에 이른다.

이들 일당은 재판으로 넘겨졌다.

올해 1월 열린 이들에 대한 재판에서 제주지법은 총책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3명도 줄줄이 징역형을 받았으며 4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액 8000만원을 환수 조치했고 추가적인 범죄조직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같은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해서는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불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a@ihall.com

무면허·음주운전에 검문 불응·도주까지...

경찰, 40대 불법체류자 검거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의 음주검문에 불응한 뒤 차를 버리고 도주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중국 국적의 40대 불법체류자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0시 16분쯤 제주도 서귀포시 외도동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차선을 넘나들며 위험운전을 하고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노형지구대 소속 김리현 순경 등 경찰관 2명은 신고 지점에서 5km 떨어진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인근에서 해당 차량을 발견한 뒤 정차를 요구했지만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인근 밭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도주하는 A씨를 약 300m 추격 끝에 붙잡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에서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소정기자

감귤 과수원에서 화재... 다친 사람은 없어

성산읍의 한 과수원에서 화재가 나 30분 여만에 꺼졌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밤 11시 34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의 한 감귤과수원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은 이날 새벽 0시 8분쯤 불을 완전히 꺼다.

다행히 이 화재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비닐하우스 일부와 열풍기 1대 등이 소실됐다.

화재는 과수원 비닐하우스의 열풍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소방은 추정하고 있다.

소방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양유리기자

파쇄기·전동가위 사고 잇따라... 3명 병원 이송

제주소방안전본부, 지난달 26일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제주 지역에서 하루 사이 전정 작업 중 신체를 다치는 사고가 3건 잇따라 발생했다.

9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19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한 과수원에서 60대 여성 A씨가 파쇄기에 몸이 끼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잔가지 파쇄 작업 중 사고로 오른쪽 팔이 어깨 아래까지 끼인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119구급대는 유압장비를 활용해 파쇄기를 분해한 뒤 닥터헬기를 이용,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한 주택에서는 전정 작업 중 60대 남성 B씨가 손가락을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B씨는 전동가위에 의해 오른쪽 중지과 약지가 부분 절단돼 병원으

로 이송됐다.

이날 오후 3시 37분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의 한 과수원에서는 50대 남성 C씨가 전동가위에 의해 다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C씨 또한 전동가위 작업 중 왼손 중지가 부분 절단돼 병원으로 옮겨졌다.

제주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최근 3년(2023~2025)간 제주에서 감귤나무 간벌과 전정 작업 등에 사용되는 파쇄기·전동가위 관련 사고는 총 159건 발생했다.

이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는 지난달 26일부터 '농번기철 파쇄기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해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비밀어창에 어획물 6t 숨겨

제주해경, 중국어선 2척 나포

비밀어창에 어획물을 숨긴 중국어선 2척이 해경에 나포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경제수역어업주권법)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1시 30분쯤 제주시 한경면 차귀도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중국 상선 선적 A호(219t, 2척식 저인망 주선, 승선원 9명)와 중국 상선 선적 B호(219t, 2척식 저인망 주선, 승선원 9명)에 대한 검문검색을 실시했다.

그 결과 A호는 삼치와 병어 등 약 4081kg, B호는 갈치와 북어 등 약 2160kg의 어획물을 비밀어창에 보관하고 조업일지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중국 등 외국 어선들의 조업일지 허위 기재나 어획물 은닉 등 어업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양유리기자



천정부지로 치솟는 유류 가격.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WTI)가 배럴당 90.9달러(6월 기준)로 치솟은 가운데 9일 제주 시내 한 주유소에 휘발유와 경유 최고가 가격이 내걸려져 있다.

"한미연합훈련 프리덤실드 중단하라"

제주자주평화통일연대, 어제 기자회견 촉구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 FS)'가 한반도 정세를 격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주자주평화통일연대(이하 연대)는 9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쟁을 부르는 한미연합 군사연습 FS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연대는 "한미 군 당국은 FS가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늘부터 19일까지 진행되는 FS는 '한미 작전계획에 따른 전쟁 수행 절차에 대한 숙달 연습'으로서 선제 공격, 지도부 제거, 북 전역 점령 등을 포함하는 '공격적인 전쟁 연습'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대중국압박으로 확대하고, 한미연합군사연습에는 스텔스기 대응 등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이미 포함돼

왔다"며 "얼마 전 주한미군이 한국 땅을 발진지로 삼아 서해에서 대중국 훈련을 펼쳐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미국이 한국을 병참기지, 전초기지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란전쟁에서 중국과의 충돌 시 주한미군기지도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우리의 의사와 상관 없이 한국이 전쟁 발진지로 활용되고 미중 충돌의 전진터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유리기자

JM 그룹 제이엠신용정보

빌려주고 못받은돈, 외상대금 등을 돌려받는 일은 제이엠에 맡겨주세요!!

'한국씨티은행' 자회사인 '씨티크레딧서비스'의 새이름

- 업계 최상 신용조회, 부동산조회 서비스
- 경력이 풍부한 추심직원의 신속한 회수
- 전국 40개 지점망을 연계한 최고의 회수율
- 2022년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부문 대상 수상

대상 채권

- 상사채권 : 물품대금, 공사대금, 용역대금, 외상대금, 투자금 등
- 민사채권 : 판결문, 공정증서 등 받고 미회결된 개인간의 대여금
- 금융채권 : 금융기관 여신 및 카드대금 등
- 채권매입상담 : 금융채권 매도 상담(매입제휴처 연계)

제이엠신용정보 제주지사
무료상담 ☎ 064)702-0500

신용정보 소비자 만족 부문
 2022년 대한민국 경영 브랜드 大賞

* 직원모집 : 영업전문직, 추심전문직을 상시 모집합니다.

감귤묘목·포트묘목 분양

※ 감귤보급품종(1-3년생)
 가장 많이 찾는 인기 품종
 ● 레드향 ● 천혜향
 ● 카라향 ● 황금향
 ● 한라봉 ● 궁천
 ● 유라조생
 ● 오히라베니와세
 ● 금굴 ● 하굴(아마나스) 외 다수품종보유

※ 국내육성품종(1-3년생)
 국내에서 개발한 우수품종
 ● 윈터프린스 ● 하례조생
 ● 미니향 ● 탐나는봉
 ● 미니론 ● 제라론

※ 포트묘목 생크림이 높고 심는 시기 조절가능
 유라조생 / 카라향 / 레드향 / 황금향 / 천혜향 / 한라봉 / 하례조생 / 윈터프린스 / 하굴 / 오히라베니 / 레몬 외

민성종묘는 종자업등록 국립종자원 품종신고 농촌진흥청 통상실시 계약자로 생산, 증식하여 공식 판매하는 종묘업체입니다.

희망을 품은 감귤묘목을 생산하겠습니다

민성종묘

농장 : 서귀포시 선반로 112-5(강정동2327-1) 하예동 1831-2번지 외 품종별 농장위치가 다릅니다. 사전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종자업등록번호 제18-2012-20-02호
010-3694-5423

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호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씨니트 접수를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흥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라종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